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 동향(12.4~12.17)

2022.12.20.(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 동 자료는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의 일일 미디어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작성
(아프간 현지 및 국제 언론보도)

1

정무/대외관계

□ 카불 내 호텔에서 무장괴한 공격 발생(언론보도 종합)

- 중국인 투숙객이 다수 머물고 있던 카불 Shahr-e-Naw지역의 비즈니스 호텔에서 12.12 무장괴한의 침입으로 테러가 발생한바, 탈레반은 테러범 3명을 사살, 외국인 부상자는 2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병원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사상자 규모는 2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IS가 자신들이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함.
- 중국 외교부는 현재 아프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출국할 것을 권고한 한편, 탈레반에 테러범들에 대한 강력처벌과 중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함.
- 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발언하였으며,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또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금번 테러를 강력히 비난함.
- 한편, 금번 테러발생 전 Wang Yu 주아프간 중국대사는 Stanikzai 탈레반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12.11)에서 파키스탄 대사대리 총격 사건(12.2)을 언급하며 중국대사관의 보안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탈레반측은 외교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함.

□ 탈레반, 재집권 후 첫 공개 처형 실시(12.8, CNN, AP 등)

- Mujahid 탈레반 대변인은 12.7 대법원장 대행, 부총리, 내무장관 대행 등 탈레반 고위관리들과 군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Farah주 축구장에서 2017년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희생자 아버지가 총으로 공개 처형했다고 발표함.
- 이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첫 공개 처형으로, 탈레반이 판사들에게 샤리아에 대한 해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한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으로, 공교롭게도 Thomas West 미 아프간특별대표가 Yaqoob 국방부 장관대행을 아부다비에서 만나고 있을 때 발표함.
- UNAMA는 사형을 강력히 반대하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였으며,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탈레반이 1990년대 퇴행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함.

□ UN, 아프간·미얀마·리비아에 대한 유엔 대표성 검토 연기(12.17, AP)

- 유엔총회는 12.16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리비아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고 결정한 신임장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함 (이에 따라 아프간 대표는 추후 재고려 시까지 현상 유지).

□ 유엔안보리,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면제(12.11, ToloNews)

- 유엔안보리는 12.9 미국과 아일랜드의 공동발의로, 모든 제재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인도)로 가결함.

□ Akhundzada 최고지도자 동향(12.14, Ariana News, 12.15, Pajhwok Afghan News)

- Akhundzada는 Haqqani 내무부 장관 및 권선징악부의 지역별 대표들과 회의에서 권선징악부는 이슬람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함.

- 또한, Panjshir주 관리들 및 종교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모든 아프간인들은 무자히딘으로 통합되었으며, 내부 분열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 **Muttaqi 외교부 장관대행, 이란 차석대사 면담서 양국간 무역 촉진 강조 (12.6, ToloNews)**

- Muttaqi 외교부 장관대행은 카불에서 Sayed Hassan Mortazavi 이란 차석대사와 면담을 갖고, 두 이웃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란 차석대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아프가니스탄의 무역 및 경제 분야 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양국간 무역액이 지난 6개월간 3.5억불이 늘어섰다면, 대이란 수출은 500만불, 수입은 3억 5,100만불이라고 집계함.

□ **Yaqoob 국방부 장관대행, 미·UAE 잇따라 접촉(12.8, Ariana News 등)**

- Yaqoob 국방부 장관대행은 12.6 UAE 부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을 만나 아프가니스탄과 UAE 간의 관계 강화와 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촉진 등 문제를 나눴다고 공개함.
- Thomas West 미 아프간특별대표는 일본, 인도, UAE 3개국 순방 중 12.7 Yaqoob 국방부 장관대행과의 면담에서, 아프간의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번영 및 탈레반에 대한 국내외 합법성(Taliba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timacy)은 여성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Yaqoob 국방부 장관대행은 국가 재건을 위해 국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국경은 안전하다면서 지역 및 세계 국가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언급함.

□ Mutasim Agha Jan 前재무장관, 아프간 귀국(12.15, ToloNews)

- UAE에 체류중이던 아프간 고위급 정치인사 Mutasim Agha Jan이 UAE를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Yaqoob 국방장관 대행과 함께 아프간으로 귀국함.
- Mutasim Agha Jan은 90년대 탈레반 집권(1996-2001) 시절 재무부 장관을 역임, 탈레반 지도부 위원회(Quetta Shura)에서 2010년까지 활동한바 있음.

□ 31개주에서 여학생 졸업 위한 기말고사 실시(12.8, ToloNews)

- 12.7 아프가니스탄의 34개 주 중 Kandahar주, Helmand주, Nimroz주를 제외한 12월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31개 주에서 졸업을 위한 기말고사가 실시됨.
- 시험에 통과한 여학생은 대입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나, 여학생들은 1년간 학교를 못 다닌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탈레반, Zarifa Yaqoubi 인권운동가 석방(12.13, Hasht-e-Subh Daily)

- 아프간 여성평등 운동에 관한 기자회견(11.3)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인권운동가 Zarifa Yaqoubi를 12.12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한 탈레반측의 공식언급은 없으며, 함께 체포되었던 동료 4명의 생사에 관해서도 아직 공개된 바 없음.

□ Hekmatyar, 소련과 나토를 향해 맞섰던 정당 지지자들을 향해 새로운 투쟁 촉구(12.10, Amu TV)

- Hezb-e-Islami 정당지도자 Hekmatyar는 자신의 카불 사무소 테러(12.2)가 있는지 일주일만인 12.9 정당모임에서 소련과 나토에

대항하였던 Hezb-e-Islami의 지지자들을 향해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달라고 발언함.

- 한편, 사무소 테러 사건의 범인이 타지키스탄 국적자들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아직 사건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테러범들의 신원을 확인 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임.

□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지역서 무력충돌 잇따라(12.15, ToloNews)

- 파키스탄과 인접한 Spin Buldak 지역에서 파키스탄군이 아프간군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 8명이 발생한바, 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12.12 국회에 출석,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해당 사건 일단락 후 동일지역에서 또다시 양측 국경수비대간 소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오랫동안 이어진 파키스탄과 아프간간 국경지역 분란이 지속되고 있음.

□ Takashi Okada 일본대사, Muttaqi 외교장관 대행 면담(12.11, Pajhwok Afghan News)

- Takashi Okada 주아프간 일본대사는 12.10 카불에서 Muttaqi 탈레반 외교장관 대행과 면담을 가진바, Muttaqi 외교장관 대행은 일본의 1억 6백만불의 신규 공여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Okada 일본대사는 농가의 양귀비 재배 대체방안 및 마약 중독자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함.

□ 미-우즈벡, 아프간 이슈 관해 논의(12.13, ArianaNews)

- Blinken 미 국무장관과 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이 12.12 워싱턴에서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회담에서 아프간 이슈에 관해 언급한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아프간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설명함.

□ 중국-사우디, 아프간 문제 협력 강조(12.11, ToloNews)

- 중국과 사우디는 12.8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한바,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 파키스탄, IS 요원 4명 사살(12.11, Voice of America)

- 파키스탄은 12.10 아프간 국경지대에서 보안군이 IS 요원 4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한바, 사살된 IS요원들이 아프간 국경쪽에서부터 North Waziristan 국경지역을 침범했다고 설명함.

□ UN, 자발적인 아프간 귀환민 123만명 집계(12.7, Pajhwok Afghan News)

- UNHCR과 UNDP는 12.6 올해 211,000명 이상을 포함하여, 탈레반 집권 이후 약 123만 명의 국내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 자발적으로 귀환했다고 발표함.
- UNHCR은 UNDP의 지원을 받아 80개 지역(75개 지구 및 5개 도시)에서 지역사회의 귀환민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귀환민의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임.

□ UNAMA, 세계인권선언 기념 계기 탈레반 향해 인권제한 조치 철회 촉구(12.11, ToloNews, Shamshad News)

- Otunbayeva 대표는 12.10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탈레반을 향해 아프간인들의 기본권 제한하고 특히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탈레반이 이와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아프간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제창에 투표한 48개국 명단에 포함됨.

□ 아프간에 관한 2022 노벨평화상 포럼 개최(12.13, ToloNews, Killid Group)

-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2022 노벨평화상 포럼(Afghanistan - Finding a Way Forward)이 12.11 오슬로에서 개최된바, Hillary Clinton 미 전 국무장관, Anniken Huitfeldt 노르웨이 외교장관, Fil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탈레반의 여성 권리 침해 행보를 지적함.

□ BBC, '전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아프간인 3명 선정(12.8, ToloNews)

- BBC는 2022년 영향력 있는 100명의 여성에 우크라이나 영부인뿐만 아니라 아프간 여성 3명(Fatima Amiri, Zahra Joya, Tamana Zaryab Parwani)을 선정함.
- Fatima Amiri는 카불에서 발생한 Kaj 교육 공격의 생존자 중 한 명으로, 한쪽 눈이 손상되었지만 대입시험에서 고득점의 성적을 냈고, Zahra Joya는 Rukhshana 언론 기자이며, Tamana Zaryab Parwani는 인권운동가임.

2 경제/인도적 지원

- 스위스 아프간 구호재단, 아프간 중앙은행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新아프가니 화폐 관련 언급(12.14, ToloNews)

- Mirabi 스위스 아프간 구호재단 이사가 카불을 방문하여 아프간중앙은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폴란드 인쇄사가 발행한 아프가니 신권이 2023년 1월 및 5월 카불에 도착할 예정이며, 신권의 화폐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아프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발언함.

□ 국가조달위원회, 7억 아프가니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12.13, Khaama Press, 12.15, Pajhwok Afghan News)

- Baradar 제1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조달위원회가 12.13 신설, 12.15 제1차 회의가 개최된바, Baradar는 트위터를 통해 △Khair Khana Kotal 도로 건설, △카불 Mirwais Maidan 지역 도로건설 등 총 7억 아프가니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고 밝힘.

□ 탈레반, 파키스탄·이란과 아프간 난민 관련 논의(12.13, ToloNews)

- 아프간 인근국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이란에서 탈레반, 파키스탄, 이란, UNHCR간 4자회담이 개최됨. 탈레반측 Rashid 난민송환부 차관 대행이 이끄는 대표단이 12.10 테헤란에 도착하였으며, 난민 귀국 지원을 위해 이란, 파키스탄 측과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함. 끝.